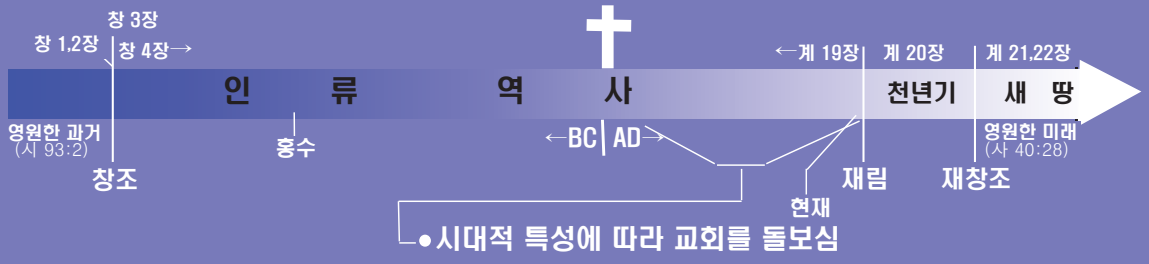
17과 시대적 특성에 따라 교회를 돌보시는 섭리

- 각 시대마다 달라지는 사탄의 전술 -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



본 문 **요한 계시록 1 – 3장** (본문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목 표
기원후 1세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과 역사의 성취
각 시대의 특성에 따라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일곱 교회, 각 시대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위한 칭찬, 경고, 책망, 위로, 교훈
예수 다시오심에 그 초점을 맞춘 요한 계시록의 기초적 시대적 배경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성

구약에 다니엘서와 신약에 요한 계시록은 성경 전체 중에서 예언들로 구성된 특유의 책으로, 십 여 세기 동안 성경에 함께 인쇄되어 있었지만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전해지게 되었다.
세상 종말이 오면 어둠의 세력이 최고의 작전술을 동원하여 뭇백성을 멸망의 길로 유도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안전한 구원을 위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적의 비밀 작전을 폭로하고 아군의 비밀작전 세부사항을 주심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배려하셨다.
같은 성경을 놓고 수 백의 교파로 나누인 이 혼란한 기독교 사회에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미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해 봄으로 알게 될 것이다.

1. 계시를 주시는 분과 계시의 배경 – 계시록 1장

성경 전체체가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요한 계시록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었음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
경전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신임할 만하지 못하다.
신의 계시가 없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다.

본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주인공 –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출처 – 하나님
~계시의 전달 순서 – 하나님 → 예수 → 천사 → 종 요한 → 종들 → 일곱교회 → 읽고 있는 나
~계시의 내용 – 속히 될 일 곧 요한의 시대부터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계시를 받은 장소 – 밧모 섬(1:9)
~계시를 받은 시기 – 요한의 말년(AD 90 – 100년 사이)

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 성취된 사실들을 볼 때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역사성은 이미 본 교재 13과에서 논의 되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 성경말씀, 곧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직접 들은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의 증거 –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하여 나타내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애를 요한이 직접 본 모든 것과 계시를 통하여 요한이 직접 본 모든 것. 인류역사를 통하여 노독들, 선지자들, 사도들 혹은 그밖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을 지칭하여 예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다 증언해 주었다.

계 1:3은 원문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들과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
요한이 기록한 원본을 한 사람은 읽고(단수)
여러 사람들이 듣고(복수)
그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 25:34)

요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자, 듣는 자 및 그 내용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다.

4-6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 계시록의 예언을 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과거) 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과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현재) 분, 장차 다시 오실(미래) 분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2)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3)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심판의 과정을 통해 미래를 약속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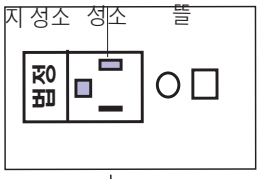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때에 비상하게 인류를 속이기 때문에, 이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밝혀 놓으셨다.
그리고 바른 구원을 받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은 인류의 최대의 소망임을 기억하자.

7,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구 총 역사를 종결짓는 대 사건이다. 창조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남은 일은 다시 오셔서 죄없는 새 땅에 있게 해 주실 일이

알파(A)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자이고 오메가(Ω)는 맬 끝의 자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구출해 내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며 계시록의 총 주제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 1:1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 1:7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2:16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 2:25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계 3: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2,13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각 시대적 특성에 따라 교회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

뜰 – 이 땅의 교회
성소 – 예수님이 승천하여 중보자로 봉사하시는 곳
예수께서 AD 27년에 십자가 이후 승천하셔서 성소에서 봉사하셨다.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중보를 마치기까지의 시대를 일곱으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친히 보살피심을 보증하신 말씀이다.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예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12, 13절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는 때는 벌써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때였다.
이 내용은 2:1의 에베소 교회와 연결됨을 유의하자.

14,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하신 예수께서 개개인의 작은 고통이나 시련까지도 불꽃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살피시는 예수님(2:18).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시련을 겪어 단련이 되셨으므로 곤경 속에 있는 백성을 넉넉히 지키며 돌보시는 예수님(2:18).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밧모섬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와 같은 우렁차고 권위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겔 43:2).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은 일꾼들을 가지고 계시다(2:1,3:1).

각 시대마다 다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 양털처럼, 불꽃처럼, 빛난 주석처럼, 물소리처럼, 좌우에 날선 검처럼, 강한 햇빛처럼 상징되셨다.

지구 창조에서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 책임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중보자와 심판자로 일하시는 예수 하나님.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진리와 오류,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고, 심판자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2: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드디어 드러내어 정오의 햇빛처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님(계 18:1; 시 37:6; 합 3:4; 말 4:2)은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적용됨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신분

지구 6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때를 현재로 하고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재를 거쳐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요한에게 보이신다.

앞서 언급했지만 일곱 각 시대적으로 펼쳐지는 교회의 양상과 그 교회를 넘어트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신다. 전략은 언제나 비밀이다.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전략은 그의 비밀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장차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지를 다 아시므로 요한에게 그 비밀을 미리 보이시고 그것을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다. 사탄의 전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창조로 시작하여 재창조로 마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18)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온 우주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신성, 인성, 믿 천사들을 망라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오로지 예수님 밖에없다. 동시에 본 계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언급한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분이 사망과 음부 곧 무덤의 열쇠 곧 선인이나 악인을 모두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낸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자 예수께서 과거(이미 본 것)와 현재(지금 있는 일)와 미래(장차 될 일)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이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당부하셨다. 이 예언들은 요한 당대를 위한 것보다는 미래에 그 어떤 시대를 위한 것인데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을 받으면서 통과하는 다양한 과정을 그 특성에 따라 나눈 일곱 시대의 각 교회들을 의미한다.

2. 일곱 교회 계 2 – 3장

첫째 – 에베소 교회(계 2:1–7) 사도 시대 AD 31–100

에베소의 뜻 : 부러워할 만하다 혹은 제일

시대적 특성 :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신자들 약 120명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핍박이 와서 모든 신자들은 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예언된 대로 이방에 복음이 확산되었다.
사도바울의 회심과 그의 활동으로 이방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신약성경이 쓰여졌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이루어진 기간이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저서, 1882년 발행,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 1권의 속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VOL I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번역하면 사도들의 교회)

이기는 자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부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유무상통하며,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방에 복음의 횃불을 밝힌 사랑이 넘치는 부러워할 만한 사도 교회시대.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금촛대는 성소제도에서 첫째 칸에 있는 촛대를 말하는데 이는 예수 승천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곱 교회들을 상징한 것이다. 예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중보자로 봉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을 못박은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였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죽으면서 핍박이 일어났다(행 7:). 그럼에도 저들은 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합세했다.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으나 사도들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사탄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첫 사랑도 식어졌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더 이상 복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영지(靈知)주의의 한 분파로, 육신의 행위가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비성서적 이단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물리쳤다.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도시대 초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떡을 뗀 것처럼(행

2::44-47) 장차 새 땅에서 생명과를 먹을 것을 약속하셨다.

둘째 - 서머나 교회(계 2:8-11) 핍박 받는 시대 AD 100-313

서머나의 뜻: 몰약, 향내를 풍기는 일종의 식물 이름

시대적 특성 :
사도교회 시대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각지에 전파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동원하여 핍박 전술을 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형극장에서 순교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시대를 이루었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저서,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 2권의 속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ECOND PERIOD
ANTE-NICENE CHRISTIANITY;
or,
THE AGE OF PERSECUTION
AND MARTYRDOM:
from the
DEATH OF JOHN THE
APOSTLE TO CONSTANTINE THE
GREAT.
A.D. 100-311(325).

"THE BLOOD OF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번역하면:
니케아 이전 그리스도교
혹은
핍박과 순교의 시대
사도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콘스탄틴누스대제 직전까지
A.D. 100-311(325)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제국 황제들에게서 핍박 받는 시대로, 콘스탄탄 황제가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하여 신앙의 자유를 갖기 까지, 약 2세기를 말한다.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로마의 역대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간(생명)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음으로(AD 100 경), 로마 황제들에 의해 제국 판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5-305) 때에 그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 동안 순교당한 자들 중에는 폴리갑, 익나시우스, 저스틴 마터, 시메온 등이 있었다.

"이 광경을 자신이 목격한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서들은 시장 마당에서 화염으로 변했고, 목사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다. 과장하지 않은 말로, 맹수들은, 마치 이교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떠맡은 것처럼 공격하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피묻은 검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 pp. 68-69, vol II,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충성심은 증가했고, 순교자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더욱 확산되었다." p. 69, vol II,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10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

(본 서의 한 토막을 읽어보자)
"이 기간 동안의 교회는, 세속적 소유와 명예에 있어서는 가난했지만 하늘의 은혜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에 있어서는 부요하였다.
비록 인기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저들은 원기왕성하고, 그리스나 로마제국의 철인(哲人)들보다 폭넓은 사람들이었다.
주로 낮은 계급에 속했지만 그 시대에서 가장 깊고 가장 숭고한 매력을 가졌고, 저들의 가슴에 세상을 위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알려지지 않았으나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라봄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명백한 패배로 오히려 정복했고, 그들의 순교의 피로 성장했다. 행위에 있어서 위대했고, 고통 가운데서 더욱 위대했고, 그리스도의 영예와 오는 세대를 위하여 죽는 데 있어서 가장 고귀했다. pp. 8,9, vol II,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황제들에 의한 박해 중에서 그 절정의 10년간이 예언되었다. "303년 2월 23일에 그리스도인 멸절의 축제(The Feast of the Terminalia)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 번에 칙령을 내려, 과거 어느 황제보다 혹심한 박해를 가했다. 막시미안(Maximian)은 304년 4월 30일에 네 번 째로 최악의 칙령을 내렸다. 교회들은 파괴되고, 모든 성경들은 압수 불태워버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의 권리와 공권을 박탈 당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거부하는 자들은 죽음의 고통으로 희생되었다. p. 66, vol II,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이러한 가혹한 핍박이, AD 303년 2월에 내린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칙령 이래 콘스탄티누스(AD 306-337)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주기까지 정확하게 10년간(예언상 1일은 1년) 계속되었다.

10,11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온갖 핍박과 순교자의 길을 가는 충성스런 이들에게 가장 좋은 위안은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셋째 - 버가모 교회(계 2:12-17) 이교의 영향 받는 시대 AD 313-538

버가모의 뜻: 높이든다, 혹은 인기

시대적 특성 :
제국의 핍박이 멈추고 기독교의 문이 활짝 열린 때에 그리스도교 + 태양신교 = 제 3의 새 종교의 형성기, (이 교회가 다음의 암흑시대로 연장된 교회임)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종교의 교리와 품습과 제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혼합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옥설-터툴리안
~영혼불멸설-오리겐
~부활절-이교의 봄절기로

핍박받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의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되면서부터 교황권이 성립되기까지를 말한다.
서머나 교회 시대의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안 사탄은 핍박에서 타협정책으로 바꿔 약 2세기를 넘도록 교회 안에 각종 미신과 이교의 풍습을 끌어들여 진리와 오류를 뒤섞는 인기 절정의 시대.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 안에 오류가 뒤섞인 진리를 갈라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콘스탄틴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래 황제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교의 풍습과 사상과 의식들을 끌어들여 그

부터
~태양탄일 축제에서 크리스마스
~이교의 여신 숭배에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 숭배에로
~베드로의 열쇠-438, 첫 교황
~천사와 죽은 성인 숭배
~예정론-아우구스티누스
~영혼불멸설-아우구스티누스
~안식일의 예배가 제 칠일에서 첫째날로-364,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수도원제도 도입, 528
~성직제도와 교회정치가 뿌리내려 뭉쳐지는 시기

이 기간 동안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판도에 침입하여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유럽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기간이며 작은 뿔이 점점 커지는 기간이다.

다음의 문헌들을 읽어보자

"밀라노 칙령은 핍박을 끝내는 그리스도교의 승리의 구분점이 되었으며, 다른 합법적 종교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로마의 공식적 종교로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몇 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성직자 회원들은 고액의 납세 의무에서 면제 되었고, 이에 따라 세금을 감당해야 할 부유층의 사람들은 성직자와 주교가 되기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정규적으로 교회에 자금이 지급되었다. 군대 안에서 일요일이 성일로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그리스도의 축제일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날이 태양신의 축제일이 되었다. 교회들은 법적 단체로 인정되어 유산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성직자들의 결정은 법정에서 제정되는 시민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교 제사의 자유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으

리스도교를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일을 하여 교회에 공을 세우는 것같이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단의 위(Satan's throne)라고 지적해 주셨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황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Antipa = Anti Pope).

14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태양신교의 미신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혼합되었다.
민 22-25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음란의 잔치를 벌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음하게 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게 한 것과 같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발락)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기독교에 자유를 제공하고,
각 곳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제들에게 봉급을 주며,
교회 운영을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후의를 베풀자(음란의 잔치) 교회가 갑자기 번영하게 되었다.
번영과 동시에 부패되고, 이때를 기회로 하여
321년에 콘스탄틴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였고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태양의 날 일요일로 바뀌었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함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혼합을 행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였으나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들을 받아들여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용인되었다.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진리에 주린 버가모 교회에 적절한 묘사이며, 만나를 통하여 잃었던 안식의 축복을 되찾는 표징이 된다(출 16:21-30).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새 이름은 변화된 품성의 소유자로써 승리를 표상하였다(창 17:5-아브람; 창 32:28-야곱)

이 기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자.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로마의 첫 황제였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인 리키니우스(Licinius)는 제국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종교 단체에게 동등의 예배 자유를 부여해 주었다. 그리하여 300년 후반기에는 그리스도교가 제국 안에서 인기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 안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향이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헌신의 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매우 인기 있는 대상이 되었다. 황제들은 교회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다. …" - World Book, Roman Catholic Church, The Early Church.

"이교의 습관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교회가 다신교의 박해를 맹렬하게 받을 동안에는 타협적 정신이 한동안 그쳤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다신교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의 이론과 유전을 받아들였다. 4세기 초엽에 있은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의 형식적 개종은 일반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실상인즉 세속적인 것이 경건을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타락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다신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다신교의 정신은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다신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 79, 80.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교회 안에 꽂았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원수는 폭력을 씀으로 손해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신

며, 어떤 이교의 사원은 폐쇄되었고 저들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의 건물을 위하여 전 제국에 걸쳐서 아낌없이 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어서와 같이 핍박의 기간 중에 어떤 이들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혹은 교리적 불일치로 내분이 생기어 갈라지게 되면 콘스탄티누스는 이를 간섭하였다. 그는 서로의 일치를 위하여 종교회의, 의회를 조직하였으며, 최종 해결책을 위하여 교회의 결정을 강행하도록 민권의 힘을 사용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사업을 지지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37년 그의 임종시까지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임종 시에 침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흔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고 죽으면 침례 받는 때부터 죽는 시간까지 치명적인 죄를 짓기 어려울 것이므로 구원받는 것은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15-16, Milestones of History, The Fires of Faith, Newsweek Book,

밀라노의 칙령:
AD313)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씨니우스(Licinius) 황제가 밀라노에서 회담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연명으로 공포했다고 전해진다. 칙령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정부의 산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조(吉兆: 순조롭고 평탄하게 되는)가 되는 종교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도록 결의함." 15, Newsweek Book, The Fires of Faith.

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인의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 68, 69..

넷째 - 두아디라 교회(계 2:18-28) 광야교회 시대 AD 538-1517

두아디라의 의미 - 깨뜨리다 혹은 고난의 희생

시대적 특성 :
이미 언급한 대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교와 태양신교의 합작으로 뒤섞인 진리와 오류가 종교회의 과정들을 거쳐 교리화 되어 10여 세기 동안 시행되고 지켜져 오면서, 다져지고 굳어지는, 소위 암흑시대로 교황 최상권의 시기이다.

단 7:25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1260년 기간의 시작점을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과 동일하게 본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끝은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본다.
두아디라 교회 후기에는 존 위클리프가 개혁을 시작했고 (1320년경), 후쓰와 제롬이 연이어 개혁에 가담, 화형을 당하였다(1415.
레퍼브르, 베르갱, 틴덜, 쯔빙그리 등의 희생적인 개혁자들이 개혁 사업에 가담하였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중세의 교회는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격적인 연속과 더 많은 개발의 역사이며, 다른 편으로는 개신교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11, vol IV,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1885

작은 뿔로 묘사된 세력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럽 전역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중세기의 기간으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종교개혁의 논문을 발표하기까지(1517, 10, 31)를 말하며, 하나님의 참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면서 깊은 산중 토굴 속에서 10세기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가냘픈 교회.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중세의 긴 기간 동안 핍박을 피하여 알프스 산중에서 발이 닳도록 헤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묘사되었다. 암흑으로 뒤덮인 세월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중세기의 끝무렵인 14, 15, 16세기에 시작되는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적인 활동을 칭찬하신다.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세벨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안에 끌어들이고,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왕상 16:30-33, 18:4,13,19).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교 로마의 태양신이 들어와 (4,5세기부터) 중세기를 거쳐 교회가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채택하고, 십자군 혹은 예수회를 조직하여 그들을 통하여 참 성도들을 핍박한 중세기의 역사는 바알 종교의 이세벨의 행세와 동일하다

"정치적으로, 서로마가 붕괴되고 게르만족들이 자리잡게 된 때를 중세로 잡지만 교회 역사는 6세기를 마감하면서 대그레고리가 마지막 감독이자 첫 교황으로 시작된다.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의 종지부는 그리스도교의 근대 시대를 이루는 16세기(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그 끝을 잡는다." 5, vol IV,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1885.

"교회의 가장 혹독한 형벌은 파문, 저주, 금지 등이다. 이것들은 중세기 동안 성직자들이 들고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었다." 376, vol IV,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Schaff, 1885.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 몇가지:
~교황권이 확립되었다.
~연옥설 교리로 채택-593년, 그레고리오 I 세
~마리아에게 기도,- 7세기 초
~성상 숭배 철폐령-726
~십자가 예배-787, 니케아 총회
~성상 성화 예배 합법성-787, 니케아 총회
~죽은 성자 위한 기도-800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800
~성(수 사용-850
~요셉(마리아 남편)숭배-10세기 초
~시성-993년 요한 XV세
~금요 사순절 금식-998년
~성직자 독신생활-1079년
~미사제도 의무화-11세기 중엽
~묵주기도-1090년
~이단자 처벌-1179년, 라테란 공의회
~종교재판소 설치-1184, 베로나 회의
~면죄부 판매-1190
~고해성사 매년 의무화-1215, 라테란 4차회의
~성체 전질변화-1215년.라테란 4차 회의
~왈도파, 알비파 이단 정죄-1215, 라테란 4치회의
~성경 평신도에 금서-1229, 발렌시아 공의회
~세례-1311
~연옥교리선포-1439
~7개 성사교리 확정-1439
~영혼불멸교리-1513, 라테란 회의

20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끌어들이는 것을 행음이라고(겔 16, 23장) 한 것과 같이, 중세 교회가 정치의 권력을 업고 유럽에 영향을 끼쳐 이교의 전통과 풍습과 우상들(성상성화 등)을 들여왔고 그 교리들을 따르게 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중세기에 교황권의 세력을 벗어나 알프스 산중 깊은 토굴에 피신하여 신앙을 지키던 왈덴스, 알비젠스 등의 무리들이 10여세기 동안 도시에서 피신하여 곤경 중에서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저들에게 다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다.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따라 이기는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재림 후 천년 기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것을 약속하셨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4,6).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암흑 시대의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옴을 알리는 새벽별같이, 위클립을 선두로 한 종교 개혁의 여명이 올 것을 암시하며, 어두웠던 진리의 말씀이 점차로 밝혀져 종교 개혁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졌다(벧후 1:19 – 샛별이 떠오름).

"이러한 다신교와 그리스도교회와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이 나타나게끔 해주었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세력이 낳은 하나의 걸작,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교황 왕중왕의 칭호-1513, 라테란 회의
~성경과 전통을 동일시함-1545, 트렌트 회의
~경외서를 성경에 포함-1545, 트렌트 회의
~성인공경 교의 발표-1545, 트렌트 회의
~프로테스탄티즘 단죄-1545, 트렌트 회의
~금서 목록-1559

기념탑에 지나지 않는다." 80,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

"로마교의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는, 법왕은 전세계의 그리스도교회의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을 지도할 최상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왕은 하나님이라는 칭호까지 받아,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불려지고, 잘못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 인류의 숭배를 요구한다. 일찍이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주장한 것과 꼭 같은 주장을 그는 오늘날도 로마교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있다." 81, 각 시대의 대쟁투 상권.

다섯째 - 사데 교회(계 3:1-6) 종교개혁의 시대 16세기 초 - 1798

사데의 의미 - 보석 이름, 즐거움의 왕, 노래

시대적 특성:
중세 암흑시대의 긴 밤을 지나는 동안 개혁의 새벽별로서의 죤 위클리프가 일어나 종교개혁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뒤이어 순교자들이 늘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나타나 개혁의 95개조 논문의 발표와 함께 지역을 달리하여 여기저기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 교황권의 세력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산발적으로 일어난 개혁의 결과는 결국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각 교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수님의 하나되라는 교훈에 걸맞지 않게 교회들은 더욱 분열되기 시작했다.

~영국 - 죤 위클리프, 틴덜
~보헤미아 - 후스와 제롬
~독일 - 마틴 루터
~스위스 - 츠빙글리
~스탄디나비아 -
~프랑스 - 레퍼브르, 베르갱, 칼빈, 파렐
~네델란드 - 메노 시몬스
~덴마크 - 타우젠
~스웨덴 - 올라프 페트리, 라우렌티노 케트리
~스코트랜드 - 녹스 , 위슬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를 거점(1517년)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교황권이 혁명군에 의하여 상처를 입기(계 13:3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까지의 약 3세기의 종교개혁과 교파 분열의 기간을 의미한다.

1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짓밟혔던 진리들을 찾아내어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깨닫고 개혁을 감행하는 종교 개혁자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땅에 던져져(단 8:12) 거의 죽게 된 진리를 개혁자들이 다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연구하여 아직 개혁되지 않은 남은 부분도 종래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사 58:12

개혁의 초기에는 꽤 순수하게 개혁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세기도 못가서 개혁의 근본 정신은 희미해지고 성경은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거듭된 토론은 호전적인 신학자들과 은혜 없는 위선적인 교회를 형성하여 분열이 이루어져 교파 관념에 사로잡혀 현대의 교회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만일 말씀대로 개혁을 완성했다면 개혁자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었으나(요 17:21-23) 개혁이 진전되며 시간이 갈수록 분열이 되는 것

리 형제

루터교회,
장로교회,
재세례파,
영국교회,
메노나이트,
모라비아 형제단,
회중교회,
침례교회,
청교도,
감리교회
퀘이커, 등등.

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파들이 형성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4절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나간 순수한 몇 단체들이 있었다. 그중에 순교자인 후쓰의 제자들인 모라비아 교도들, 퀘이커 교도(영국의 조지 폭스), 및 청교도들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개혁자들의 근본 정신과는 달리 교파가 분열되는 혼란한 중에서도 진리를 따라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여섯째 – 빌라델비아 교회(계 3:7–13) 1798 – 1844
재림의 임박성을 전하는 시대

빌라델비아의 의미 – 형제의 사랑

시대적 특성:
말세를 알리는 징조들이 막 성취되면서, 영국, 미국의 성서공회들이 조직되고 성경이 다량 보급되어 성경연구가 고조됨으로 예언을 통하여 예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열심히 대대적으로 전하다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자 실망 낙담하기까지의 복음 전파의 짧은 기간.

~1789년 –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암흑시대를 뒤흔들어 잠을 깨웠다.

~1798년 – 중세기의 유럽을 호령하던 교황권의 세력이 프랑스의 혁명에 의하여 꺾였다.

~종교개혁이 그 고비를 넘기고, 교파들이 형성되고 분열되어 쪼개지는 시기.

종교개혁이 그 절정을 넘어서고,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 일단 꺾인 해(1798)부터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까지의 재림 운동의 매우 짧은 특유한 기간을 말한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사 22:22)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가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가문을 말한다.(마 1장; 눅 3:23–31의 족보 참조)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의 스케줄에 따라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려 심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우주 거민들은 언제나 드나들며 방청할 수 있는데 이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이다.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간 동안에 성서 공회를 통하여 성경이 번역 · 출판되

~1804년과 1816년에 영국, 미국에서 성서공회가 조직되어 성경이 대대적으로 분포되던 시기

~성경의 다량 공급으로 성경 연구가 고조되는 시기.

~근 25세기 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을 해석하는 중에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전하다가 그 날에 오시지 않게 되자 대 실망을 하고 흩어졌다.

다음과 같은 철학자들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대이다.
칸트– 계몽주의 철학자
괴테– 범신론적 철학자
맑쓰– 유물사관
다윈– 진화론을 주창한 생물학자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 .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 1844년 10월 22일은 시험의 날이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랑의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과 사건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날을 맞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시험이 되었다. 후자는 그 예언의 말씀에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다시 모여 성경을 공부하여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

었다. 외방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성경 연구를 통해 다니엘과 계시록을 깨닫고 재림 기별을 전하며 준비했다(계 10장, 18과에서 상술된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를 통하여 일어난 재림운동을 반대하며 조소하고 저지한 자칭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요일 2:4 참조) 중에서 재림의 임박성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윌리암 밀러의 성경 연구를 통하여, 184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해지고 신천지가 회복되는 줄로 알았으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은 수의 진실한 자들이 있어 계속 성경을 연구하여,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히 8:1,2, 9:24, 계 11:19 <다음과에서 상술된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음 과에서 상술되겠으나,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렸었으나 오시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면류관을 빼앗겼다.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일단 실망에서 되돌아와 회복된 사람들은 계시록 10장에 예

언된 대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 흔들리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었고 새 이름들이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다.

일곱째 – 라오디게아 교회(계 3:14–22) 남은 무리 시대 1844 – 재림

라오디게아의 뜻– 심판으로 의롭다고 선포된 백성

시대적 특성 – 1844년의 대실망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갔다.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예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저들의 실망으로 물러갈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마침내 그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교파를 초월하여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교리들을 다 흡수하고 성경대로 따르기로 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조직된 무리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지하게 재림운동에 가담하여 일하던 사람들은 실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였다.

마침내 저들이 오해한 성경절(단 8:14)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하여 말씀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

~구약의 성소문제와 마지막 심판 문제를 포함한 구속의 계획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대언의 영을 통하여 성경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1844년의 대 실망 후, 몇 사람들이 다시 모여 성경말씀을 연구하여 저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깨닫고 성경 전반적으로 재조명하여 세계선교사업을 추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교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2천년 전에 주어진 예언들이 2천년이 거의 지나는 오늘에 역사가 예언에 따라 정확히 성취된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참으로 진실되고 확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한 복음 1장 1–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본래 창조의 근본이시다. 19세기 중엽에 대두된 진화론에 의하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를 불신하는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상태가 그대로 묘사되었음을 알게 된다. 교회를 다니며 신자로 고백하지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현실 교회를 그대로 직언하고 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실까?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지식도 갖추었고, 각종 현대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여 외형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도 풀이하고, 성소의 진리를 이해하며, 잃었던 안식일도 되찾아 지키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

을 닮을 수 있고, 세계 선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성경말씀에 따라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전인 건강생활을 위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가정 문제, 자녀교육 문제, 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침서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위와 같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실망 이후, 160여년이 지난 오늘의 상태는 외형은 잘 갖추었다 하여도 영적으로는 심히 메마른 상태에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히 12:6)

고 대언의 영을 가지며 영혼 문제에 대한 성경상 바른 이해를 가지며,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과 함께 의료, 출판, 교육, 출판 사업 등 세계적인 조식을 가진 부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그 반대이다.

곤고한 것 – 말씀은 먹으나 씹지않고 먹음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
가련한 것 – 말씀의 은혜가 흡수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가난한 것 –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남에게 줄 것이 없다.
눈 먼 것 –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우리의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받아 회복되기를 바라신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기뻐하여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와같이(마 13:44), 각 시대를 거쳐 시련 속에서 견뎌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여 풍성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8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의 갈피갈피마다 엮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품성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진리와 오류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잃은 종교계의 현실과 자신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도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려있는 문은 두드릴 필요가 없다.
~창조하심으로 나를 있게 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사 43:7),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생명까지 희생하신 구속주 하나님(요 3:16),
~언제나 어디서나 손만 내밀면 나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계 22:20)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며 안타까워하며 밖에 서 계시는 예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자.
그래야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님을 바라보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주의 왕께서 죄로 찌든 형편없는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그 엄청난 특권을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 뿐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비밀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대하면 배불리 먹게 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램 15:16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1000년간 왕노릇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

마침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을 조사하여 이해하는 1,000년기의 기간을 가질 것이다.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임을 생각하고 이 귀중한 특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을 바로하자.

계시록 예언에 나타난 일곱 교회와 역사적 적용

이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성구	계 2:1-7 행 1-28장	계 2:8-11	계 2:12-17	계 2:18-29 살후 2:33-37	계 3:1-6	계 3:7-13 계 10장	계 3:14-22 계 12:17,18:4
이름 뜻	제일, 부러워하다	몰약	높다, 높이 든다	수고의 향내, 고난의 희생	보석의 이름, 즐거움의 왕	형제의 사랑	의로운 백성, 심판하는 백성
시대 구분	사도 교회	로마제국의 핍박받는 교회	이교의 영향 받는 교회	암흑시대의 피신한 광야교회	종교개혁과 분열의 교회	재림운동과 선교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된 남은 무리
구분 근거	십자가 - 마지막 사도의 죽음	사도 이후 - 콘스탄틴의 개종	밀라노칙령 - 3뿔 꺾임	교황권 확립 -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 - 재림운동 전	밀러운동 - 정한때 끝	2300주야끝 - 재림때까지
기간	AD 31-100	100-313	313-538	538-16세기초	16세기초-1831	1831-1844	1844-세상끝
예수 묘사	7별, 7촛대 사이에 다니심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부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눈이 불꽃, 발이 주석같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거룩, 진실, 다윗의 열쇠 가짐	아멘,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적용	승천 후 하늘 제사장직	순교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이교의 풍습을 갈라냄	긴 환란에서 연단됨	말씀을 밝히는 성령,개혁자들	봉한 책이 열려 예언을 풂	영원한 복음과 대언의 영
예수 아심	행위, 수고, 인내	환난과 궁핍	네가 사는 곳 사탄의 위	사업,사랑,믿음,섬김,인내	네 행위	네 행위	가난, 눈먼 것, 벗은 것 모름
적용	핍박중에도 복음을 확산시킴	로마황제들의 극심한 핍박	황제의 개종, 교회번영진상	산중 암혈속의 그리스도인	종교개혁의 과감한 활동	예언연구와 재림운동의 불길	자신을 모르는 가련한 모습
칭찬	자칭사도시험,니골라당 미워함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부요함	굳게잡고 믿음 저버리지 않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음	더럽히지 않은 자 몇명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않음	칭찬 없음
적용	세속주의, 이단 배격	핍박중에도 희생적 신앙	오류 중에서도 진리를 지킴	암흑을 깨치는 개혁 초기	몇 개혁자들의 순수신앙	쓴 실망 중에도 견디어 냄	-
책망	처음 사랑을 버림	책망 없음	발람과 니골라당을 좇음	이세벨을 용납, 행음, 우상제물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임	책망 없음	미지근함, 가난, 눈멀고 벗었음
적용	성령강림 때보다 퇴보됨	-	진리에 이방 종교 혼합됨	이교풍습 도입, 교권 정권연합	상호 비연합과 교파분리 정신	-	오늘날의 재림신앙인들의 상태
권고	회개, 기억하라, 첫행위 회복	고난 두려워말고 죽도록 충성	회개하라	회개하고 굳게 잡으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굳게 잡으라	회개하라, 사라, 문을 열라
적용	처음의 순수신앙을 가지라	죽음을 두려말고 충성하라	비진리에서 돌이키라	맹종하지 말고 원칙에 서라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 되라	대실망에서 낙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
경고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 없음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침상에 던짐, 자녀를 죽임	도적같이 이르리라	경고 없음	토해 내리라
적용	복음이 이방에 넘어감	-	말씀으로 비진리를 갈라냄	암흑시대의 교권, 정권 연합	개혁자들의 위태한 생명	-	심판에 의해 부족이 드러남
약속 상급	생명과를 먹음	생명의 면류관	감추인 만나, 흰돌, 새이름	철장으로 다스림, 새벽별 줌	흰옷, 이름을 시인함	성전의 기둥, 새 이름을 기록	같이 먹고 보좌에 함께 앉음
적용	교제의 떡을 먹던 이들에게 생명과를 약속	순교자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약속	진리에 굶주린 이들에게 말씀의 만나를 약속	암흑시대가 끝나고 개혁의 아침이 올 것임	개혁자들의 순교를 인정해 주심	실망한 자들에게 기둥과 같이 확고히 설 것임	어린양의 혼인잔치, 심판의 권세를 약속하심. 조사심판의 기간